

삼성·GS, 사우디서 9.6조 수주 잭팟

아람코 가스플랜트 증설
일 경쟁업체 제치고 따내
사우디 수주액 사상 최대
대통령실 “정상외교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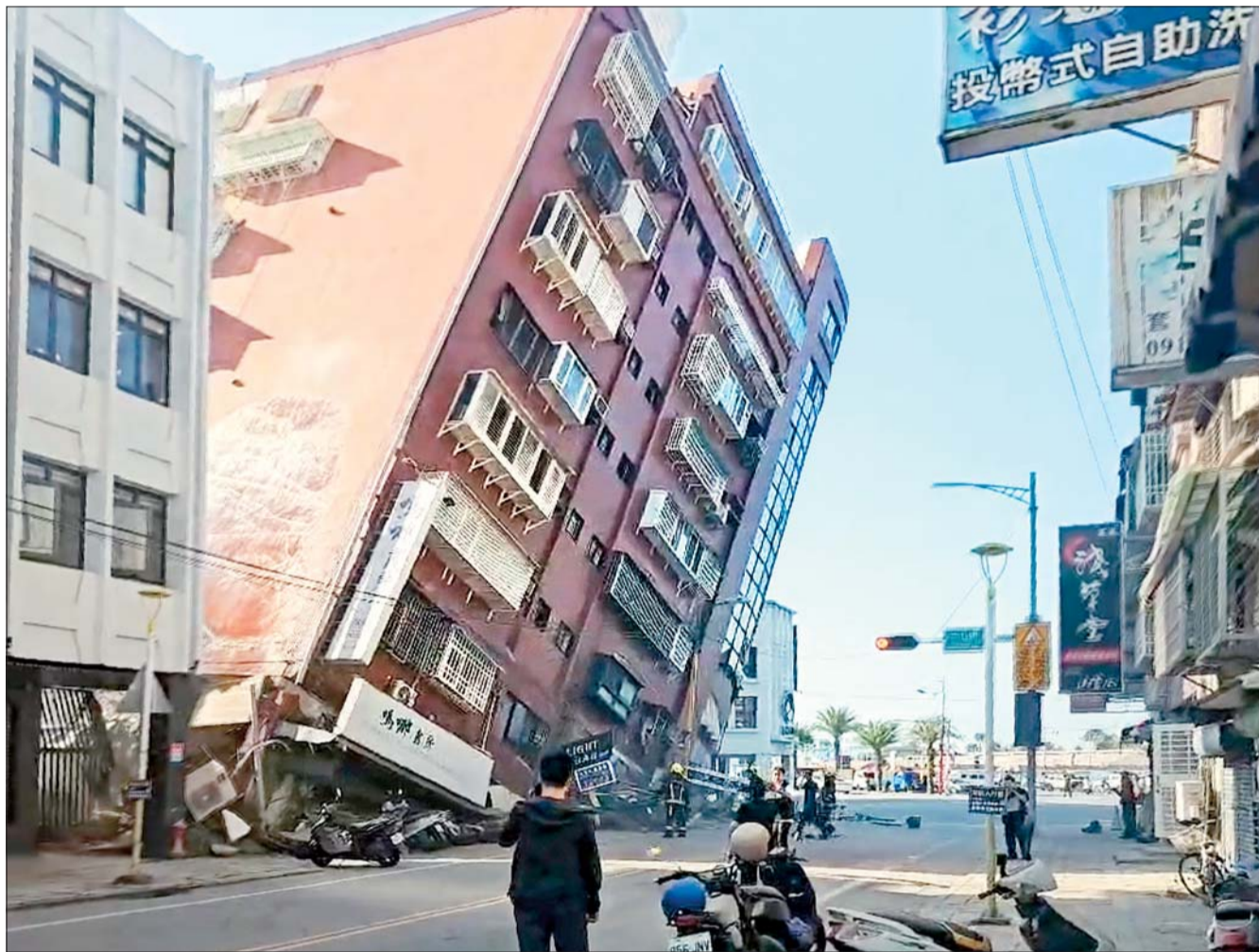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2억 달러(약 9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스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지난해 6월 아미탈 프로젝트(6조7000억원)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사우디 공사 수주다. **관련기사 A4면**

3일 삼성E&A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에서 ‘파달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1·4번’ 공사를 수주하고 전날 현지에서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주 금액은 60억달러(약 8조원)로 이 회사가 1970년 창립 이래 최대 규모 해외 수주다. 설계와 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 프로젝트 전 영역에 걸쳐 사업을 수행(EPC)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 북동쪽 350km에 위치한 기존 파달리 가스플랜트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삼성E&A는 가스처리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1번과 전기 공급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4번을 따냈다. 가스처리시설에선 육상·해상 가스전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스로 처리한다.

GS건설도 같은 프로젝트의 패키지 2번인 황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 허윤홍 대표가 계약을 체결했다. 총 12억2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다. 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고도화 설비를 통해 하루 800t의 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패키지 1·6번으로 구성된 파달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중 세 개가 한국 기업 몫이 됐다.

삼성E&A는 “아람코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혁신 성과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했다”고 수주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 선도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인 일본 JGC 등과 경쟁 끝에 따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한·사우디 정상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를 국민방문하고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건설·인프라스트럭처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수주로 올해 한국 기업들의 누적 해외 건설 수주액은 127억2000만달러(약 17조1600억원)로 늘었다. **연구유·우재윤 기자**



3일 오전 8시(현지시간)께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대만 동부 화롄현의 빌딩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다.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한 것은 1999년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이다. 이날 지진으로 건물 100여 채가 무너졌으며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진은 홍콩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만큼 컸으며, 필리핀과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TVBS·AP연합기사**

대만 7.4 강진... TSMC 일부 가동중단

25년 만에 최대 규모 강진이 대만을 강타했다. 1999년 9월 21일 대만 난타우현을 덮쳐 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9·21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3일 대만 동부 화롄현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736명 다쳤다. 일부 지역에서 건물 붕괴 등 정전이 발생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관련기사 A10면**
이번 강진은 3일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동부 인구 35만명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건물 붕괴로 사상자 속출
일 오키나와 쓰나미 경보

곳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20km로 관측됐다. 이어 13분 뒤인 오전 8시 11분에는 화롄현 북동쪽 11km 수역에서 규모 6.5의 여진이 발생했다. 대만 중앙재난대응센터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이후 몇 시간 만에 1000건이 넘는 재난 신고가 접수됐다.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지에서는 무너진 건물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대만 소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지진 직후 일부 생산라인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시켰다.

한편 대만 지진의 영향으로 이날 일본 서남단 요나구시섬에는 높이 30cm의 쓰나미가 도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섬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한재범 기자**

금감원장 “양문석 대출 명백한 불법”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말 발표한다. **관련기사 A6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서울 여의

도 분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A6면**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대구 구성

새마을금고에 5명 규모의 검사반을 보내 양 후보의 의혹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5일간의 검사 기한을 예정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우람 기자**

“내년 R&D예산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통령실, 대폭증액 계획
“혁신형 사업에 1조 투자”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을 앞두고 올해 R&D 예산 삭감 이후 학계와 이공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A11면**

3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저희의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이 목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31조1000억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일부 R&D 예

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판단하에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R&D 예산 감축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여서 과학계의 반발이 컸고, 야당에도 공세의 소재를 준 꼴이 됐다.

박 수석은 이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R&D 예산 일부가 나눠먹기 식으로 쓰였던 과거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다”고 강조했다.

R&D 예산 편성의 목표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박 수석은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도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예산을 R&D 예산 전체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재윤·고재원 기자**

암치료 서울 갈 필요있나요 화순전남대병원의 ‘존재감’



암 수술에 특화
환자들 만족하고
해외서도 인정
‘빅5로 상경치료’
편견 깨고 안착
지역 거점병원
실력으로 증명

“서울까지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멀리 가지 않으니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병원에 면회도 자주 오고 치료받는데 힘이 된다.” 최근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한 50대 환자는 로봇수술을 받은 뒤 회복 속도도 빨라서 만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A5면**

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이 서울의 ‘빅5 병원’을 떠올린다. 인구 6만명의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런 편견을 깬 흔치 않은 병원으로 꼽힌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키우고자 하는 지역 거점 병원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 중앙학 분야 평가에서 전 세계 120위를 기록했다. 국립대병원 중에는 서울대병원과 두 곳만이 이룬 성과이며 비수도권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역 병원이라는 한계에도 6대 암 수술 건수 ‘국내 톱5’라는 성과가 화순전남대병원의 실력을 증명한다. **최승민 기자**

2024 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민간 제안사업 공모

Knowledge
Sharing
Program

기획단계부터 기업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공급자 제안형 모델도입을 통한 우리기관/기업의 수출·수주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제안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건 선정
58건 접수

2023년
10건 선정
55건 접수

KSP사업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은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온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참가신청

2024.5.19(일) 까지
ksp@kotra.or.kr로 신청서류 접수

문의

KOTRA 개발협력실
ksp@kotra.or.kr
02-3460-7534/7532

설명회

2024.4.15(월), 11:00~12:00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